

2019 10월 <2019 도사를 보는 10명의 작가展>



2019.03. — 12.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7시 OPEN
인천도시역사관 소임홀



[00] 000000

00 00 000 000 000 000 000?

00 000 0000 0 0000 00 0000 000 0000 00 0000 0000 00, 00 00 00 0000 000000. 00 000 000 0000 00 00 00 00 0000 000 0000 0000. 0 0 300 00 00 00 000 00 0000 000 000 0000 000 000.

00 000 000 000 000 00000 0000 0000000000 00 3000 00 1000 000000 00 0000 000 000 00, 0000 00 000 00, 0000 00 000 000 00, 00 0 0 00 000 00 0000 '000 00 1000 00 0'00 00 00 000 0000.

기 간	작 가	주 제
3. 27.(수) ~ 4. 9.(화)	<u>김보섭</u>	시간의 흔적
4. 24.(수) ~ 5. 6.(월)	<u>고제민</u>	기억과 삶을 품은 공간 - 인천
5. 29.(수) ~ 6. 12.(수)	<u>류재형</u>	잊혀져가는 철길, 주인선을 가다
6. 26.(수) ~ 7. 9.(화)	<u>유광식</u>	얼음집이 <u>녹는다</u>
7. 31.(수) ~ 8. 13.(화)	<u>김성환</u>	인천, 국제도시를 꿈꾸다
8. 28.(수) ~ 9. 10.(화)	오현경	나무의 복수
9. 25.(수) ~ 10. 9.(수)	<u>임침하</u>	집의 지표
10. 30.(수) ~ 11. 12.(화)	<u>오석근</u>	인천(仁川)
11. 27.(수) ~ 12. 10.(화)	<u>조오다</u>	겹쳐지는 인천 도시를 증명하다
12. 18.(수) ~ 2020. 1. 2.(목)	<u>노기훈</u>	1호선

12월 18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1호선> 전시를 개최한다. 1호선 전시를 통해 '1호선'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또한, 인천의 도시를 증명하는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인천의 도시를 증명한다.



2019
도시를 보는
10명의 작가展



#10 노기훈
1호선

2019.12.18. ~ 2020.01.02.
인천도시역사관 소양홀

인천도시역사관 강연정보

[00] 0000000

100 000 000 000 200 000 000 000 000 0000 0 000 0000 000 00 00
00 00 0000 00 000000 0000 000 000 0000 00 000.



이러한 방식은 관객의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또한 이 방식은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공공'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목적실
소암홀
 Multipurpose Room



CCTV 설치 안내

설치목적	범죄예방, 화재예방, 시설안전 등
설치장소	경천도서관 1층 101호
촬영대상	건물 내 외부 지역
촬영시간	24시간 24시간 촬영
문의사항	경천도서관 010-4700-4000

경천도서관

2019
도시를 보는
10명의 작가

소암(小岩) 마을
 연수구 동촌동 750번지 일대의 봉채산 서쪽 구릉에 위치했던 자연마을로
 동촌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사라진 마을이 되었다. 지금 풍동마을로
 연수파크자이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다.

경천도서관은 750번지 일대의 봉채산 서쪽 구릉에 위치했던 자연마을로
 동촌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사라진 마을이 되었다. 지금 풍동마을로
 연수파크자이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다.



0.00 / 000

000 000 00 00 00 <000 000>

주최 인천광역시 · 주관 청년협동조합W42 · 주민주관방 가정집

입에서 입으로

청년협동조합 W42가 마련한 청년 데이북 토크

/ 우리의 스다가 진짜 기억이 되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떤 점이 달라질까?



12/18 (수) 오후

- 1시
- 3시
- 5시
- 7시
- 9시

쉐프하우스 - 서구 원창동 215
 각 타임당 25명 - 서초순막강1
 나의 응원 마음 청년들께 나누다

본 사업은 2019 대통령배를 희망자사업 [가정에 살며지었다]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문의: 070-4409-7400 (W42사무국)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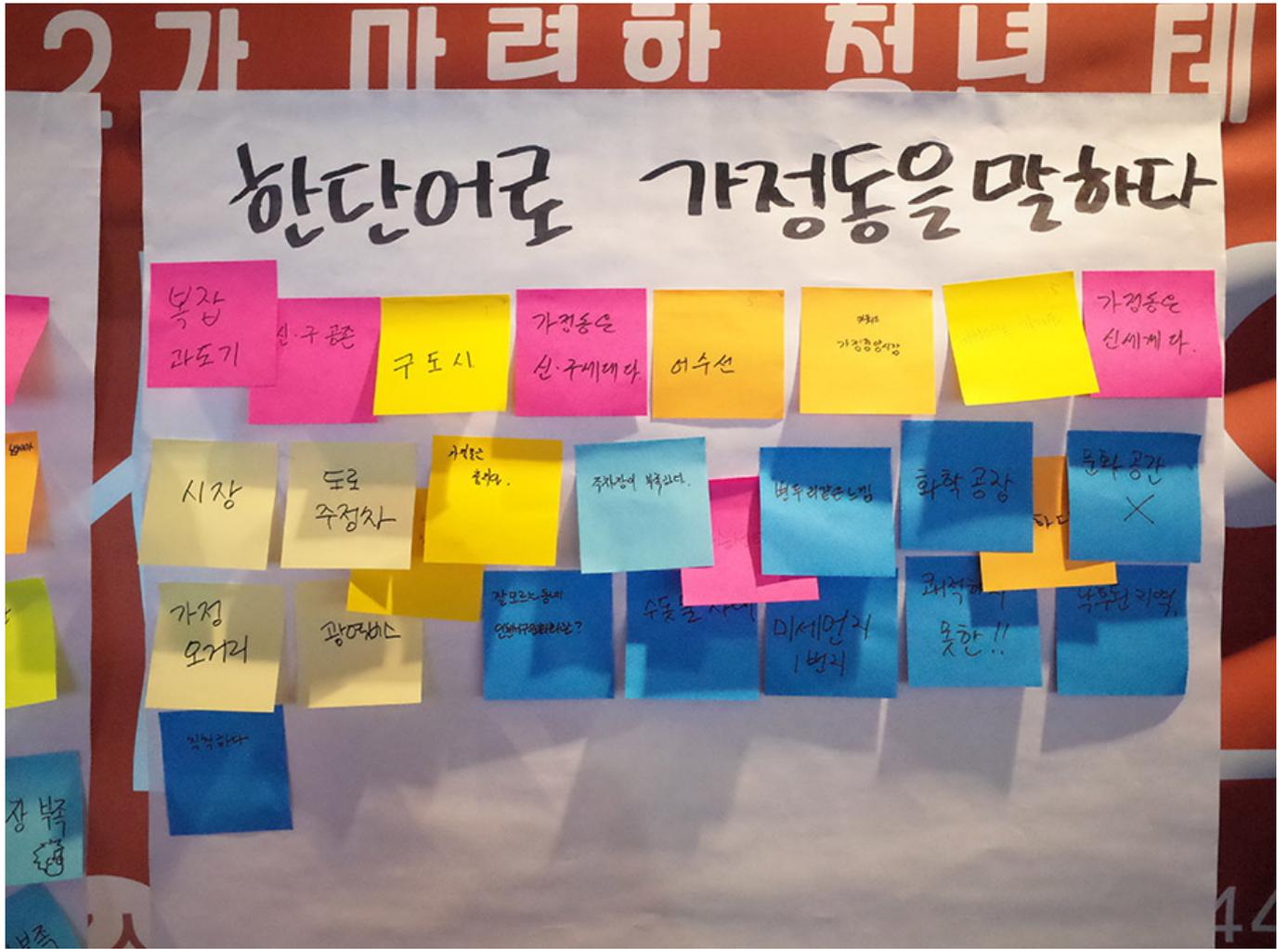
ארוחת צהריי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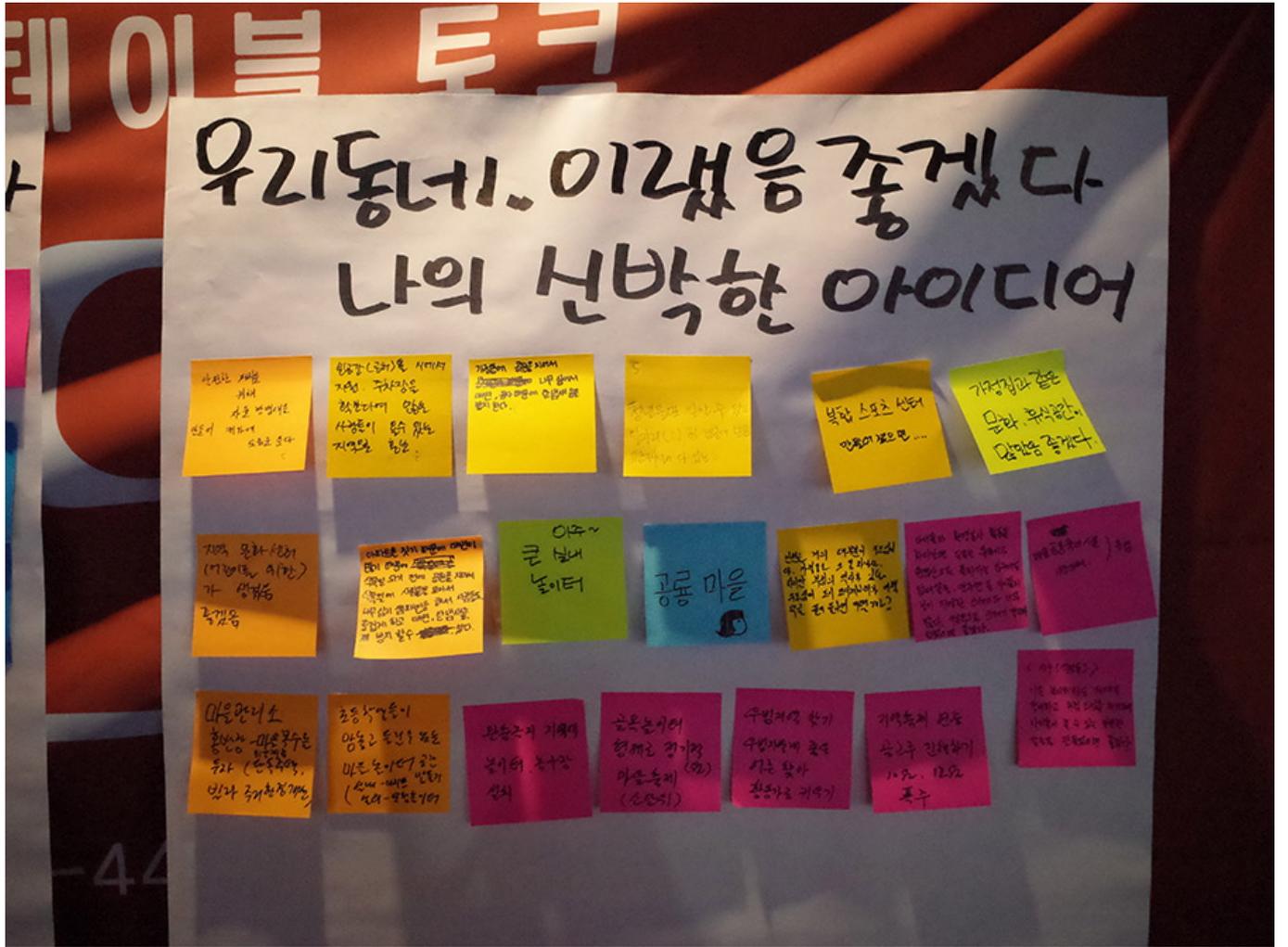
ארוחת צהריים היא אחת מהמחלקות החשובות ביותר במסעדה, והיא זו שצריכה להציע את הטעמים והמגוון הגדול ביותר. מטרתה היא לספק אוכלוסיה רחבת היקף של אורחים, ולכן היא צריכה להיות מאוזנת, נעימה וקלה. ארוחת צהריים היא הזדמנות מצוינת להציג את המגוון של המסעדה, ולהציע אוכלוסיה רחבת היקף של אורחים.

ארוחת צהריים היא הזדמנות מצוינת להציג את המגוון של המסעדה, ולהציע אוכלוסיה רחבת היקף של אורחים. מטרתה היא לספק אוכלוסיה רחבת היקף של אורחים, ולכן היא צריכה להיות מאוזנת, נעימה וקלה. ארוחת צהריים היא הזדמנות מצוינת להציג את המגוון של המסעדה, ולהציע אוכלוסיה רחבת היקף של אורחים.

ארוחת צהריים היא הזדמנות מצוינת להציג את המגוון של המסעדה, ולהציע אוכלוסיה רחבת היקף של אורחים. מטרתה היא לספק אוכלוסיה רחבת היקף של אורחים, ולכן היא צריכה להיות מאוזנת, נעימה וקלה. ארוחת צהריים היא הזדמנות מצוינת להציג את המגוון של המסעדה, ולהציע אוכלוסיה רחבת היקף של אורחי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 □□□ <□□
□□□, □ □□□ □□>

방탄 어린이, 새 시대를 열다

소파 방정환 탄생 120주년 기념 특별전

2019. 12. 6 -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실

소파 방정환 선생 탄생 120주년 기념 특별전
〈방탄어린이, 새 시대를 열다〉



어린이의 출현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론

이들을 위하여야

방정환 생애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어린이'의 출현

어린이라는 말은 유희환에 의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여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의 어린이는 나이가 어리거나 성숙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자식은 어른의 명령에 따르거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또 가문의 대를 잇거나 노동력을 위해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어린이는 부모나 집안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어린이를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게 되면서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라는 새로운 생각이 싹텄습니다. 어린이는 고귀하고 존엄한 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개성과 권리를 갖고 있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자랄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어린이관이 1920년대 방정환과 어린이운동가에 의해 널리 퍼졌습니다.

* 거꾸로 된 글자가 다섯 개 있습니다. 찾아서 말을 만들어 보세요.



대한뉴스로 본 어린이날

1970년대
과자종합선물세트

1960년대
야구글러브,
스포츠신발

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이 때문이지요.
찾을까요?
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

어린이 여러분

대한뉴스는 어린이 여러분을 위하여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여러분에게
대한뉴스의 어린이날 특집 기사를
특별히 소개합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이 기사를 통하여 어린이날의
의의와 중요성을 알게 되고
어린이날을 맞이할 때 더욱
기쁘고 즐겁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뉴스 어린이날 특집
기사 소개

1. 어린이날의 유래와 의의
2. 어린이날의 중요성
3.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방법
4. 어린이날의 즐거움
5. 어린이날의 희망



1. 어린이날	1954. 5. 5	대한뉴스 제 40호
2. 어린이날의 유래	1945. 5. 13	대한뉴스 제 313호
3. 어린이날의 중요성	1975. 5. 20	대한뉴스 제 1030호
4. 어린이날의 즐거움	1985. 5. 7	대한뉴스 제 1435호
5. 어린이날의 희망	1994. 5. 11	대한뉴스 제 2009호

十年後朝鮮童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날 특집 기사

“십년 후의 초선을 생각하여”
1922년 5월 1일 천도교소년회 창립 1주년 기념 ‘어린이의 날’
『동아일보』 1922. 5. 1

어린이의 날

대한뉴스 어린이날 특집 기사

어린이날의 유래와 의의
어린이날의 중요성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방법
어린이날의 즐거움
어린이날의 희망

1925 27세
〈동생을 찾으러〉 연재

1926 28세
〈칠칠단의 비밀〉 연재

1927 29세
라디오 방송 “어린이와 직업”

1928 30세
세계아동예술전람회 개최

1929 31세
학생회 창립

1921 23세
천도교소년회 창립
‘어린이의 날’



00, 000, 0000 00 0000 00 000. 300 00 000 00 000 12000 00 00000
 00 00 000 0000 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00 000000 00 00 00000 00000 00 0000 0000 00 000000 0000 0000 0000 00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목표, 이 모든 것>은 단순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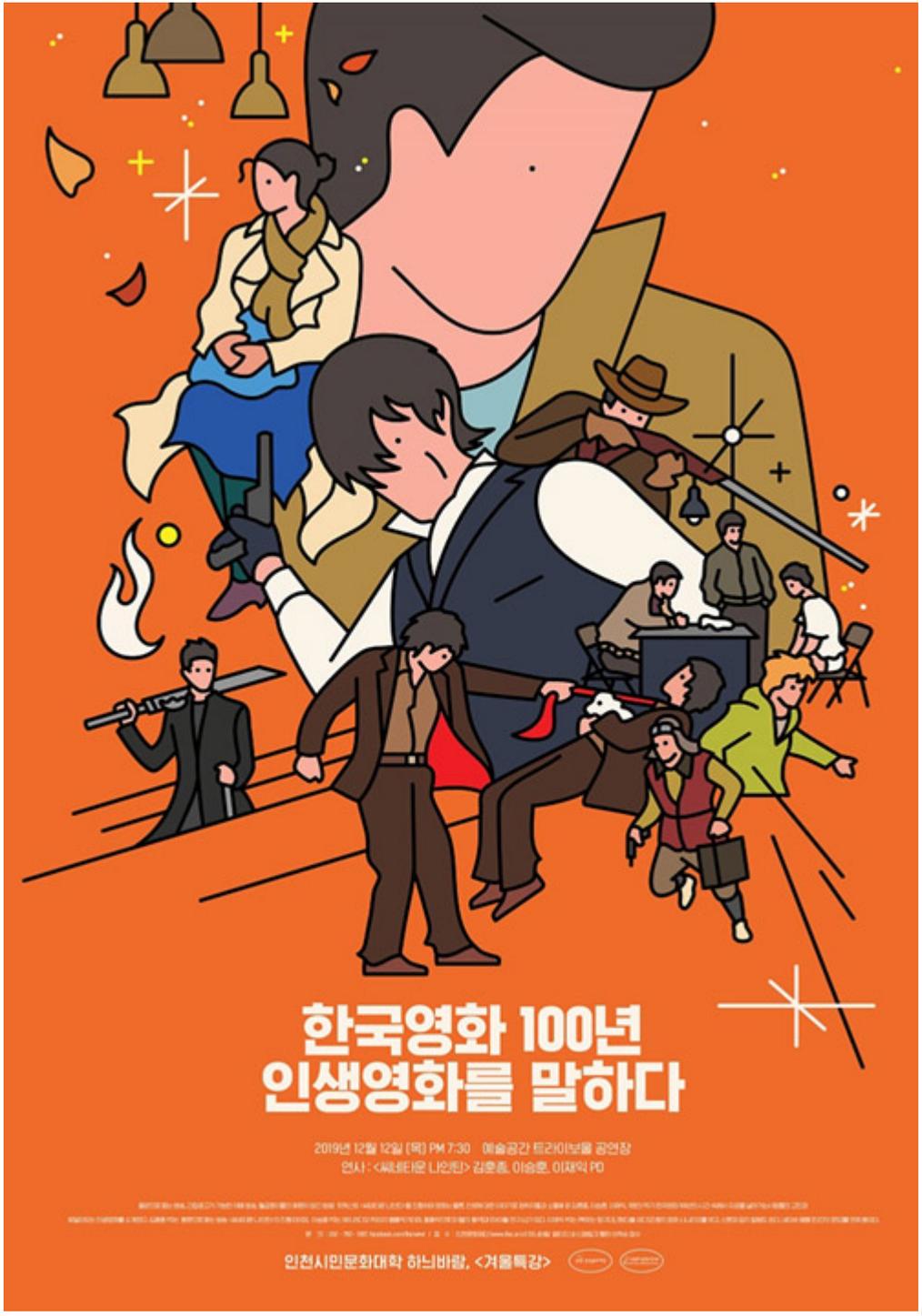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 이 모든 것>은 단순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 100 /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 이 모든 것>은 단순하지만, 우리는, 이
이 **PD**는 우리가 '우리의 목표 **100**,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00] 000000 0000

00 00 000 0 000 000 00 '0000'0 0720 000000 0000 0000000 00000 0 0
 00 00000 000 00 00 000000. 0 000 0000 10000000 0000 00 0000 0000
 1000 000 0000 00 000000 00 0000 00000 0 0 00.

120 120 00000000 00 000000 000000 00000 '00000 1000, 000000 0000!'0 0
 0000. 000000000 000000 00000 0000 000 0000 0000 <00000 0000>0 0000 PD0 0
 00 000. 00 000, 0000 PD0 00 00000 10000 00000 0000 0000 000000 0000 0
 0000 00000 000000. SBS0000 3000 PD0 8000 00000 00000 00 00000 0000 00000
 00000 0000 000000000 0000 0000 00000 00000. 00000 10000 00 00000 00 00 0

0000 000 00 00 0000.

00000 000 PD 00000 0000000. 000000 100000 000 00 0000 00 0 0000 00
0 0 00. 8000 000 00 0 0000 0(0) 00000 00000 0000000 0000 9000 00 0
0 0000 0000 00 000000 00 00 000000 00 000000. 000000 000 PD 0000 00
0 00 0000 00 00000. 0000 0000 00 0000 '00 00000' 00 00. 00 0000 00 0
0 00000 00 000000 0000000 0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
0000. 00000 0000 0000 0000 0000 00 00 '0000 00 00000?' 00 0000 00 00 0000
00000 0000 0000 00 000000 00. 0000 0000 000000 0000 00 0000000 0000000 0000 0
0 0000 0000 00000.

0000 0000 100, 00 0000 00 0 0000

00 10000 00 00 000000 00 0000 00000 0000 000000 0000 0 0000 0000 00 00.
1000 0000 000000 000000 00 1,0000 0000 00 000000 0000 00 '00000' 00 00
00000 10000 0000 0000 0 0000 00000 000000. 00000 00 00000 00 000000 0000
0000 00000 0000 00 00000 0 0000 0000000 00000 0 0000 0000 0000. 00000 00000
0000 00 0000 0 0000 0000000 0000 0000 0000 00000 00000 00000 10000 00000 0
0 0 00 0 00.

0/
0000 000000

2019 0000000 00000000 <0000 00 00
00>

렉저콘서트(강연+공연)

재즈로 읽는 모던 조선

2019 트라이보울 예술아카데미
〈재즈로 읽는 모던 조선〉

장유정과 주화준트리오

백제콘서트(강연+공연)

재즈로 읽는 모던 조선

장유정과 주화준트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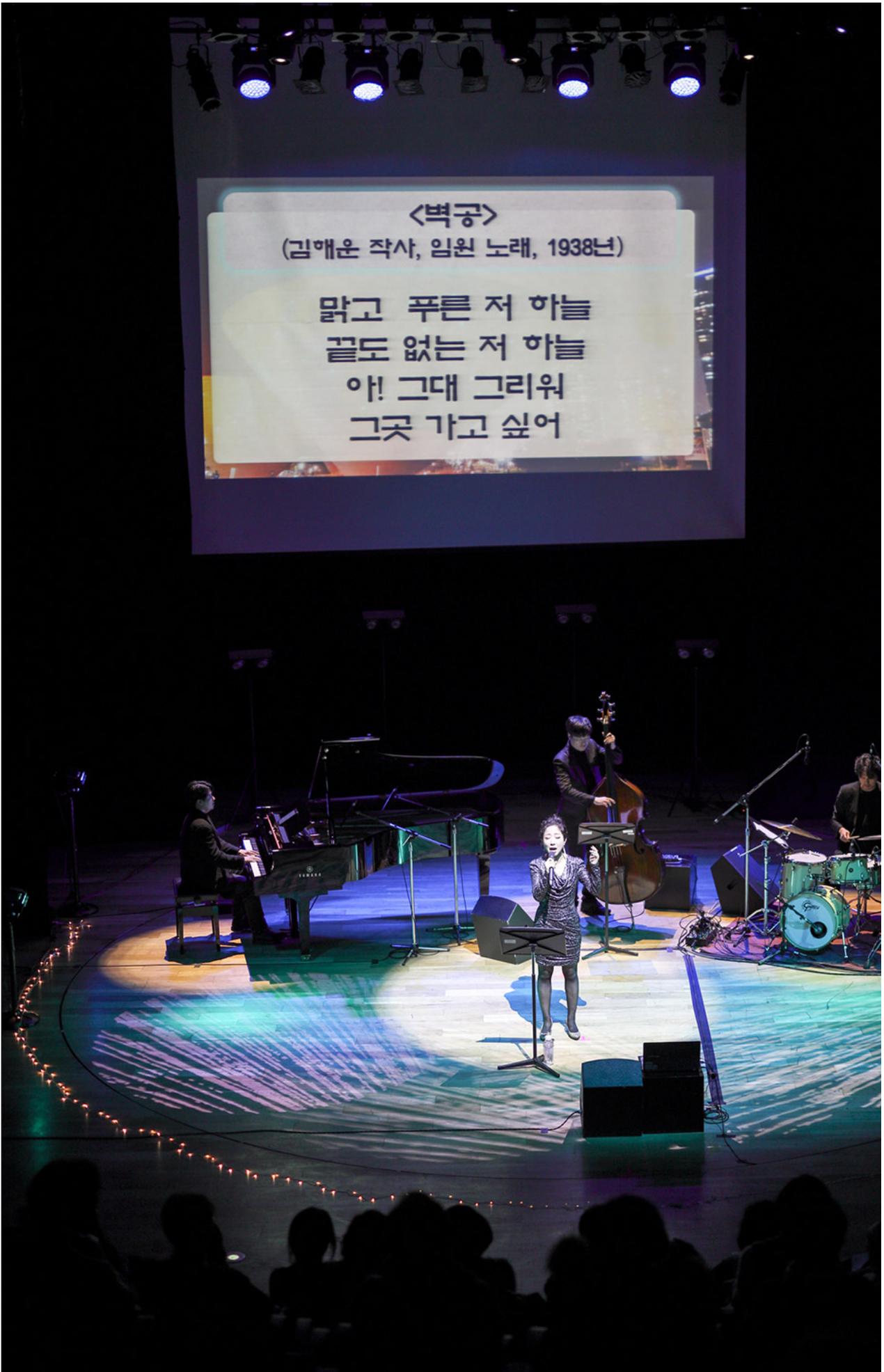




<벽궁>

(김애운 작사, 임원 노래, 1938년)

맑고 푸른 저 하늘
끝도 없는 저 하늘
야! 그대 그리워
그곳 가고 싶어





이 공연은 '미국 재즈 밴드의 패왕 폴 화이트맨'의 음악을 주제로 한다. 폴 화이트맨은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 재즈 음악의 대표 인물로, '왕자 밴드'를 이끌었다. 그의 음악은 재즈와 클래식, 팝을 융합한 '스트림라인 재즈'의 선봉자였다. 이 공연에서는 그의 대표곡을 연주하며, 그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하고자 한다.







2017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특별시 예술의전당 한옥마을 야외무대에서 열린 '2017년-2018년 (2017)'의 전통예술 공연을 소개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3부작 공연으로, 전통예술(2017)을 통해 전통 예술의 정수를 소개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3부작 공연으로, 전통예술(2017)을 통해 전통 예술의 정수를 소개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3부작 공연으로, 전통예술(2017)을 통해 전통 예술의 정수를 소개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3부작 공연으로, 전통예술(2017)을 통해 전통 예술의 정수를 소개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3부작 공연으로, 전통예술(2017)을 통해 전통 예술의 정수를 소개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3부작 공연으로, 전통예술(2017)을 통해 전통 예술의 정수를 소개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3부작 공연으로, 전통예술(2017)을 통해 전통 예술의 정수를 소개합니다.

2017-2018년(2017)-2018년(2017)의 전통 예술 공연을 소개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3부작 공연으로, 전통예술(2017)을 통해 전통 예술의 정수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뤘다. 특히 1980년대는 군사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로, 많은 예술가들이 이를 주제로 작품을 창작했다. 1990년대에는 경제 개방과 함께 서구 문화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작품의 비중이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관객의 취향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0년대에는 주로 지식층을 겨냥한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 많았지만, 1990년대에는 대중적인 오락 요소를 더한 작품의 수요가 증가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연예인 출연 작품의 비중도 늘어났다. 이 시기에 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공연의 홍보와 관객 동원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대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연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공연 예술의 대중화와 상업화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일부 예술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예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예술은 사회를 비판하고 인간성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상업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있다. 이 시기에 공연 예술은 대중적인 오락과 예술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연예인

이들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뤘다. 특히 1980년대는 군사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로, 많은 예술가들이 이를 주제로 작품을 창작했다. 1990년대에는 경제 개방과 함께 서구 문화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작품의 비중이 늘어났다. 이 시기에 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공연의 홍보와 관객 동원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대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연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공연 예술의 대중화와 상업화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일부 예술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예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예술은 사회를 비판하고 인간성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상업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있다. 이 시기에 공연 예술은 대중적인 오락과 예술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0000. 00 00 <0000 00>0 00, 0000 00 00 0 000 0000 0000 0000 0000 00
0 00 0000 0000, 0000 00000 00 0000 0000 00 00 0000 0000000 0 0 00 00 0
0 0000 0000.

00 00000 0 0000 0 00 0000 00. 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
00 00 0000, 0 0 00 00 00 00000 ‘0’0 00 0000000. <00000 00>0 00 0000
00 “00 00 00 0000. 0000 0 0000~.” 00 0000 0000000, 00 0 0000 00 00000
0000 0000000 0000, 0 0000 00 00000 0000 ‘0’0 00 0000 00. ‘0’0000 0000 00
0000 0 0000000, 00 0000 ‘0’0 00 0000 0000 00 0000 00 000000 0000000. 00 0
00000 00 0000 0000 0000 0000 ‘0’0 00 00 0 0 0000000 0000 0000 0000 0 00.
0000 1000 00 0000 00 0 000000 0000 00 0000.

<00000 00>00 00 00 00000 00000 00 0 00000. 00000 00 00 0000 00 0000 0
00 0 0000 00000 00 00000 00 00000 00. 0 00 00000 0000 00 0000 0000000 0
00. 0 00 201400 20160 0 0 0000 00, 0000 0000 0000 0000 0000 0 00000 0
0 00 0000000 00 0000. 00000 0 00 00000 0000 ‘0’0 00000 00 0000 00 00000.



0000



이 공연은 전통 한국 춤과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춤꾼들은 전통 한복을 입고, 전통 악기를 사용하여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청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이 공연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젊은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공연이 될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